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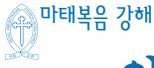
§ 2015년 포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일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마 21:18-22)

The fig trees which are thick only with leaves

(Matt. 21:18-22)

예수님은 공생애의 마지막에 이를 즈음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 성 밖 베다니로 가서 유하셨습니다.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그의 두 명의 누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은 결코 부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곳에 가신 것은 가난한 집이라도 마음이 편한 집에 머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며 길가의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열매로 허기를 면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무화과나무에는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19절)고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Jesus cleaned up the Temple of Jerusalem upon the end of his public life and went out of the city to Bethany where he spent the night. There was a house where two sisters of Nazaros had lived there. Nazaros' family was never rich judging by their house. Nevertheless, the reason why Jesus went to their house was that even though they were not rich, he wanted to stay there and feel at home.

The next morning, He entered the city of Jerusalem, saw a fig tree by the road, and he wanted to eat fruit of fig tree to satisfy his hunger. And there, he went up to it but found nothing on it except leaves and said to it accursedly, "May you never bear fruit again! (v. 19).

1. The inner fruit is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external life of faith

It is no wonder that when we see the fig tree thick with leaves, we expect the fruit of it. Jesus went up near it. Upon finding no fruit on it and cursing it, immediately the tree withered. In fact, Jesus wanted to give an audio-visual education to his disciples by a fig tree.

Israelites are chosen people, who are greatly blessed by the grace of God. Any national people have never experienced God's miracle like exile of Egypt. Nevertheless, now there is only a religious rite for Israelites but there is completely no fruit of faith. The Apostle Paul explained the fruit of faith like this.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Gal 5:22-23). The fruit of spirit is the change of personality, in other words, inner modesty, purity, righteousness, and love... These are just what Jesus Christ is looking for fruit.

2. You will receive what you believe and ask for in prayer

"I tell you the truth, if you have faith and do not doubt, not only can you see what was done to the fig tree, but also you can say to this mountain, 'Go, throw yourself into the sea' and it will be done. If you believe, you will receive what you ask for in prayer" (vv. 21-22).

His disciples saw the withered leaves and wondered how so quickly this thing happened. At that time, Jesus did not reproach them but gave them another spiritual lesson adjusted to their level.

"Are you amazed when you saw fig tree withered so quickly? If you have faith and do not doubt, you can move mountain and throw it into the sea. If you believe, you must ask for in prayer. If you can ask for in prayer with faith, you will receive your response."

However, if we receive what we ask for in prayer with faith, is there anyone who is sick or unsuccessful? Like this, though his disciples

received his word as a phenomenal casualty, Jesus' word was really about God's vision and our calling. Thus, what we pray in faith is not the prayer of which we receive what we want but achievement: which means that when we pray for God's great vision, we can see the work of God who let us turn an impossibility into a possibility.

My beloved Christians,

You must see with eyes of faith of which was given the calling and vision by God for our life, for our family, at work, especially to our church. Moreover, you must pray in faith to achieve the calling and vision. You should check the spiritual fruit of our inner part. By praying in faith,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God's people of faith achieving God's calling and visio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My beloved Christians, The Temple must be a house where all people pray, and be filled fully with the love of helping the poor, and the Christians' songs singing in a high voice. And above all, this must become a ship of salvation to look for lost souls and save them. In this sense, I earnestly hope that our Seoul Church will be the church of which such a wonderful work occur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1. 신앙생활의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열매이다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나무는 곧 말라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한 그루의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요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민족도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종교적인 의식만 남았을 뿐 신앙의 열매는 도무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변화, 다시 말해서 내면의 겸손함, 순수함, 자비와 사랑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2.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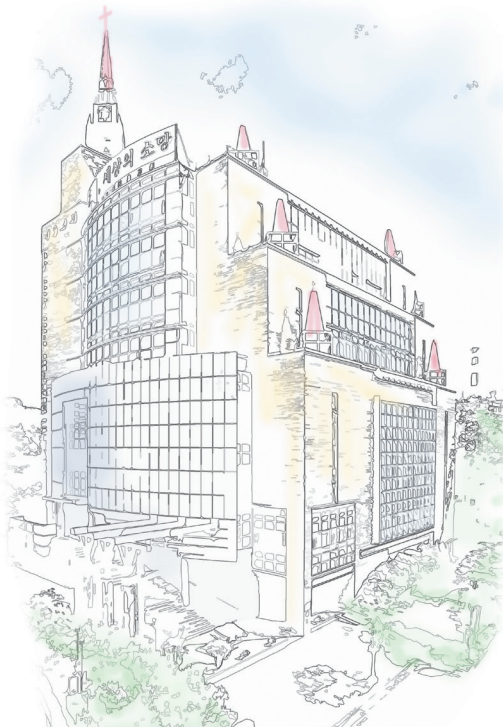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21-22절).

제자들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더디 깨닫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또 다른 영적인 레슨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화과나무가 즉시로 말라 죽는 것을 보면서 놀라느냐? 만약 너희들에게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져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야 한다. 만약 믿음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응답은 이미 다 받은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면 아플 사람이 어디에 있겠으며 실패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현상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불가능한 일들도 다 가능케 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 특별히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면의 성령의 열매들을 점검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5년 전반기 장학생 선발

오리엔테이션: 2월 1일(주일) 오후 4시, 본당
장학금 수여식: 2월 1일(주일) - 찬양예배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안인호 장로)는 2015년 전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오후 4시에 있을 오리엔테이션에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때에 장학금을 받을 본인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장학금 수여식에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 47명으로 본인의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봉사에 모범적인 학생들이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 자라나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끄는 기둥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송암장학생 - 22명
- 전미정 전미경 박유란 한현지 이다현 이혜진 정상준 이성화 김기남 제연주 김문범 이예원 김 휘 임채연 오소정 김진안 박경은 이동훈 한동현 신도빈 윤석준 강경민
- * 고등부 - 4명 김은초 정예빈 김미르 남유라
- * 디아스포라부 - 6명
- 최아라 홍지아 김혜경 김수진 정윤희 조영금
- * 교역자, 선교사자녀 - 12명
- 황신혜 김지혜 우하은 김예림 이준행 김예나 정에스더 김노수 조라빈 조라혜 이평화 이지형
- * 호산나전문대학 - 3명 류근휘 김종열 김신탁

동계 비전트립 파송식

2월 1일 (주) 찬양예배 시 - 2월 2일(월)~12일(목) / 미안마 양곤

그 동안 선교훈련을 받은 동계비전트립팀(지도: 유문건 목사, 단장: 최차순 장로)이 2월 1일(주) 파송식을 갖고 미안마 양곤으로 2월 2일(월)에 출발한다. 선교위원회(위원장: 이영기 장로)는 작년에 2015년 동계비전트립 지역을 미안마 양곤으로 확정

하고 단장으로 최차순 장로를 임명하여 지금까지 훈련 중에 있다. 이들의 입,출국 및 선교현지에서의 모든 일정과 건강 등을 위해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하다.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 중 에바다부, 2월 7일(토) / 서울교회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27(금)~2.28(토)	서울교회	하나님, 저 왔어요!	박노철 목사 / 구본혜 전도사
유치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박노철 목사 / 양세라 목사
유년부			복음으로 사는 유년부	박노철 목사 / 고수는 전도사
초등부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박노철 목사 / 김안성 목사
고등부	2.26(목)~28(토)	아가페타운	복음을 통해 얻는 자유	박노철 목사 / 천세중 목사
청년부	2.12(목)~14(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마6:10)	서준권 목사
청년2부				장재원 전도사 / 정대는 전도사
사랑부	2.8(주일)	서울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부	박영준 목사
에바다부	2.7(토)	서울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임규현 목사

농어촌 100교회 후원자

임충식,신선주(1) 김상태(0.5) 한승집,최미아(1) 이의춘(1) 이관규(1) 노문환,장정화(1) 김권집(1) 임근수,남경혜(0.5) 이상섭(0.5) 차도훈,남태영(1) 김주현,권도주(1) 사라여전도회(1) 한나여전도회(2) (다음주 계속)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안내

아래 이메일로 ①성명 ②주민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⑥가족합산여부를 적어 보내주시면 연말정산자료를 파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seoulch@hanmail.net
- 문의전화 : 02-558-1106, 02-2193-8811
- 담당: 송미라 권사

나눔의 집

새해를 맞이하여 나눔의 집에서 판매할 성도님들의 물품 기증을 기다립니다. 나눔의 집은 그 간의 묵은 물품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매장이 많이 비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이 나눔의 집에 차고 넘치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나눔의 집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권사회 드림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58)

(문 15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마16:28)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 생전에 재림하시겠다는 것인지요?

(답) 마16:27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신 후 28절에서 제자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온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기보다 그의 임재를 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3가지 가능한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가능한 해석은 바로 그 다음 장인 마17장에 나타난 변화산에서 주님이 영광중에 나타날 것을 제자 중 볼 자들이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께 나타나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눅 9:31). 이 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영광중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보다는 별세를 말씀하신 것이므로 마16: 28에서 주님이 생각하신 것과는 거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은 오순절에 교회 위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것을 말씀한 것으로 보는 이들의 주장입니다(행2:2-4). 주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니"(요14:18)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이 다른 보혜사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120명 문도에게 불의 혀같이 임함으로 각기 제 나라 말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예수님이 몸으로 다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것도 마16:28의 말씀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었기(마24:2) 때문에 이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인 살인자들을 심판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님이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셨다는 말씀을 설명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왕으로 제자들이 아직 죽기 전 다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계속)

다락방리더 수련회

1.30(금)오전10:30-12:30/본당

다락방리더 훈련이 겨울방학을 마치고 2월4일(수)개강한다. 이에 앞서 다락방리더 수련회가 30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본당에서 열린다.

박노철담임목사의 특강과 모범다락방 시연, 교구별 모임순으로 진행된다. 다락방리더들은 전원 참석하기 바란다.

비전2020후원자의 밤을 마치며

군 복음화의 원대한 비전



손태현 집사 (비전2020운동본부)

2015년 '비전2020 후원자의 밤' 행사가 지난 주일, 초청된 결연부대의 군목과 파송된 군선교사 등 열두 분의 목사님들과 해병대사령부 군악대를 비롯한 해병대훈련단, 육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육군 제3사단, 20사단, 25사단, 30사단, 육군제2탄약창에서 60명의 장병 등 총72명이 참석하여 찬양예배



를 함께 드리고 8층 만나홀에서 2부 행사로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교회 청년부 자매들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 하네' 이중창으로 은혜롭게 시작된 만찬에서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고 선물도 한아름 안고 귀대하는 장병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뭉클한 감동과 한없는 감사가 밀려 왔던 후원자의 밤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이갑진 은퇴장로님의

군 복음화에 대한 열정적 헌신으로 이제 궤도에 오른 비전2020운동의 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 정예화된 도교 1, 2 기도팀과 함께 본부장 최광성 장로님을 중심으로 모든 임역원이 한마음으로 군 복음화가 이 땅에 온전히 이뤄지는 그 날까지 여호수아 같은 충성과 헌신으로 그 사명을 다 할 것입니다. 서울교회는 비전2020운동을 실천하는 시범교회로서 여섯 분의 군

선교사 파송과 자매 결연부대의 진중세례식지원과 함께 군 입대자와 군 파송선교사들을 위한 도교를 주일 902호에서 갖고 있으며 매월 첫 주일 오후 3시 30분에는 부모와 함께 하는 기도모임도 갖고 있습니다.

군 복음화를 통하여 2020년까지 민족의 75%를 복음화하는 이 원대한 비전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농어촌100교회를 후원하며

교회는 농어촌에도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박종권 집사 (11교구)

여행을 하면서 본 농어촌교회는 평화롭고 정겨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농어촌교회는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외국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어촌 경제가 더욱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역자들은 농어촌교회 보다는 도시교회를 더 선호하며, 농어촌교회 교역자들은 자녀교육 문제, 숙식문제, 경제적 문제로 부임 후 길어야 3년 안에 부임지를 떠나는 경우가 많고, 교역자를 떠나 보내야 하는 농어촌교회 교인들 역시 상처만 남는다고 합니다.

농어촌교회가 이런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교회는 농어촌에도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농어촌교회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 재능, 물질의 나눔의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진리로 받아 들여 집니다. 가진 것은 작지만 나누었을 때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 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교회의 세 기둥 즉,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 중 만민에게 전도의 한 부분인 농어촌 100교회 후원은 나눌 수 있어 우리에게 기쁨이고,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영영 죽었던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조그마한 물질적 나눔은 보잘 것 없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농어촌교회의 목사님이 목회에 조금 더 전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면, 농어촌 100교회 후원은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의 기회이자 귀한 섬김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가정도 꾸준히 농어촌100교회를 후원하게 하여 나눔의 즐거움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도와 물질로 농어촌100교회 후원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가정 한선교사를 후원하며

저희 가정의 두 렘돈이 소병이어가 되기를

김장섭 집사 (13교구)

코흘리게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른 채 작은 할머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 동네에서 10여리 떨어진 이웃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에 나가면서 저의 신앙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과의 만남은 학창시절과 군 생활을 거치는 동안 다소의 굴곡을 겪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통해 지금의 아내를 주계로 인도하게 하였고, 지금은 세 자녀를 포함한 온 가족이 주일성수하며 각자의 신앙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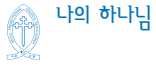
비교적 순탄하게 주님을 영접하였고,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생활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로목사님께서 시무하시던 시절, 『1가정1선교사후원운동』이 시작되었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과부의 두 렘돈 헌금을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1/2 구좌로 후

원에 동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끔씩 들어오셔서 하는 선교보고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들리게 되었고, 선교사 도교팀에 합류하여 기도도 후원함은 물론,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희 가정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딸을 홀로 말라위 단기선교에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때의 딸의 모습이 아름다웠던지 하나님께서는 그 딸이 가는 길을 지금까지 형통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등 떠밀려 시작된 후원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것조차 아름답게 꽃 피었고, 풍성한 열매로 돌아옴을 체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가정의 작은 후원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영혼 구원의 오병이어가 되고, 하늘창고의 보화로 차곡차곡 쌓이길 간구하며 복음이 열방에 확산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통일 후 북한 주민 외과진료 대비하겠습니다



우리교회 디아스포라부 고운 송 성도가 탈북자 최초 외과 전문의가 되었다. 다음은 국제신문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편집자 주)

탈북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외과 전문의가 배출됐다.

고려대 안산병원은 지난 2007년 탈북자 신분으로 한국에 정착한 뒤 4년간의 외과 전공의(레지던트) 수련과정을 마친 고운송(41)씨가 지난 20일 외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다고 22일 밝혔다. 북한에서 의사 생활을 한 탈북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딴 경우는 10여명 정도가 되지만, 고 씨처럼 외과 전문의가 된 것은 처음이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고씨는 평안남도 평성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뒤 5년동안 주변 지역에서 결핵환자를 돌봤다. 그러다가 탈북을 결심하고 중

국으로 건너가 막노동과 잡일을 하다 2007년 중국 다롄에서 평택항으로 가는 한국행 컨테이너 화물선에 몰래 숨어들어 한국행에 성공했다.

한국에 온 이후에는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고려대 도서관에서 2년 동안 과묵히 살다시피 했다. 결국 그는 2010년에 갈망하던 의사 자격증을 획득했고,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4년간의 외과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쳤다. 고 씨는 "북한에서 의사생활을 했지만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남한의 의료시스템과 큰 격차를 느껴 전공의 과정 초반부터 기초를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라틴어로 된 의학용어를 사용하는 북한과 달리, 영어로 된 의학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지도 교수의 관심어린 지도와 동료 전공의들의 도움으로 수월하

게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게 고 씨의 설명이다.

그는 남한의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외과의사의 길을 걸으려는 뚜렷한 이유도 밝혔다.

"북한에서는 의료 환경이 열악해 도병원이 아닌 하위 병원들은 분과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고, 의사의 전공을 크게 내과와 외과 두 가지로만 나눈다"면서 "특히 외과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외과의사 한명이 모든 외과분야를 진료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한국에 온 이후에도 외과 전문의의 꿈을 키웠다"고 말했다.

고 씨는 앞으로 통일보건의료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우선 외과를 중심으로 탈북의료인을 재교육한 뒤 점차적으로 모든 전문과로 영역을 확장해 이들을 남한 전문의 수준의 의료인력으로 양성하는 게 목표"라며 "이를 위해 재능이 있는 탈북자 자녀를 선발하고,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 활동할 지역 친화적인 전문의료인 교육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등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월26일(월) 한국군선교 정관 및 규칙개정 특별위원회, 1월28일(수) 국민운동의식개혁 정적운동본부 임원회, 1월30일(금) 한국군선교연합회 법인이사회, 국민운동 기금조성모임을 각각 갖는다.

■ 이갑진 장로는 1.26~2.10, 이재울 감도디아 선교사와 함께 라오스 및 미얀마 고별로 모임 강사로 선교출장 기간중 서울교회 미얀마 비전트립 팀 사역 협력, 장로교 개혁신학교 (미얀마, 총장 전호진 박사)에서 특강한다.

■ 득녀 : Aymeric Lethielleux 성도 이슬미 성도 (이태원 집사, 최정희 권사 처녀)

■ 주일식당봉사 : 리브가전도회(1.25) 한나전도회(2.1)

■ 금주의 식사 제공 : 이경수 집사 조영미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2015 성경통독대회를 마치고

성경 일독의 출발점



장아늘 (초등부)

저는 이번 성경통독대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엄마 아빠를 따라 참석하였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읽는 곳을 놓쳐서 해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난 후에는 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힘든 것 같은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열심히 읽으시는 것을 보고 저도 힘을 얻어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매년 성경통독은 정해진 분량을 이틀이나 사흘에 걸쳐서 읽습니다. 목사님들이 읽으시면 저희는 눈으로 따라 읽고 매장이 끝날 때마다 아멘을 외칩니다. 성경 읽는 모든 분들이 아멘을 외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 교시가 끝나고 간식을 먹으면서 쉬는 시간에는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읽었다는 기록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보드에 한 마디씩 적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기록을 다른 분들이 읽고 내년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을 때는 목사님 구령에 맞추어 운동을

하고 다시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억에 남는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죄도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회도 솔로몬의 성전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통독대회에 참석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2015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시간에 많이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1년 동안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성경 전체를 일독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꼭 지키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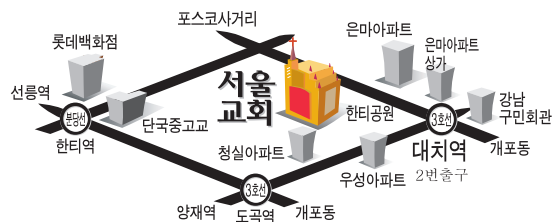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5년 전반기 장학생들이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 갈 기도와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2. 2월 2일부터 12일까지 파송 될 미얀마 동계 비전 트립팀이 잘 준비되어 복음의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3. 비전2020, 농어촌100교회, 한 가정 한 선교사 운동을 위한 후원이 풍성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본 당 II 층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 오시는 길



서울교회QR코드

